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두 번째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철학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확장되었으며, 개별 인간이나 언어, 국가와 종교 등이 새로운 사유 방식의 중심 개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세 번째 요소이다. 곧 “일원성에서 다원성으로의 방향 전환, 논리성에서 우연성으로의 방향 전환, 이성에서 실존으로의 방향 전환”이 러시아 철학이 나

아갈 길이다.

확실히 오늘날 러시아 철학은 위기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새로운 방향을 선택한 모든 철학이 갖고 있는 위기일 뿐이다. 이 위기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다. 새로운 출발을 선택한 이상, 새로운 철학적 영역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러시아 철학이 안고 있는 과제이다.

**【제79차】 How can Reason be Theoretical?**

Peter Railton(미국 미시간대학 교수)

추리(reasoning)는 관념들에 대한 것이며, 심리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논리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추리가 여러 다양한 심리적 요소들(충동, 감정, 욕구, 느낌 등)을 지배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가? 나는 흄의 이론이 이 철학적 퍼즐에 대한 적절한 해답의 단초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흄으로부터 믿음에서의 이성적이고 규

범적인 인도(guidance)를 떠받치는 심리학적 하부구조를 읽어 낼 수 있다. 흄에게 믿음은 감성의 작용이지, 인지의 작용이 아니다. 즉, 믿음은 단지 특별한 느낌 혹은 감성이다. 그것은 활동성이 없는 관념에게 사고 및 행동을 인도하는 힘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관념 혹은 표상에 대한 신뢰(confidence)가 어떻게, 사고 및 행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이유에 반응(responsive to reason)할 수 있는가? 나는 이에 대한 대답은

조건화된 자극/반응이 합리적이고 지능적일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불이 켜질 때마다 먹이를 기대하게끔 조건화된 원숭이에게 있어서 불이 켜질 때의 기대감은 이유에 반응한다는 의미에서 이성적이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 인도되는 인간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데에, 바로 이와 동일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인과적-기계적인 모델에서 우리가 어떻게 추리 혹은 규범적 인도를 발견할 수 있는지 반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흄이 설득력 있게 논변했듯이, 무한 소급에 빠지고 만다. 흄의 습성(custom)과 연합은 바로 이러한 자연주의적인 모델을 무한 소급으로부터 구하는 밑바탕이다.

**【제80차】 Saving the Truth Schema from paradox**  
Harry Field(미국 뉴욕대학 교수)

「Q인 경우 오직 그 경우만 -Tr(<Q>)」인 Q가 존재함을 보이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자기 자신이 참이 아님을 주장하는 역설적 문장이 이러한 Q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덧붙여, 만약 우리가 고전적인 참 이론을 받아들이면, 「Tr(<Q>) 인 경우 오직 그 경우만 Q」(참 도식)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럼 결국 「Q인 경우 오직 그 경우만 -Q」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고전적인 논리학에서는 모순이다. 자 이

제 우리에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러한 Q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과 고전적인 참 이론을 포기하는 해결책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나는 고전적인 논리학을 포기하고 새로운 논리학을 받아들이는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이 논리학은 클리니(Kleene)의 강한 삼가 논리학에 새로운 조건 연결사( $\rightarrow$ )를 추가함으로써 구성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 $Q \leftrightarrow -Q$ 」는 더 이상 모순이 아니다. 나는 이 논리학